

“BTS 북클럽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전직 기자 출신 최병관 '방탄독서' 펴내
BTS가 읽고 사랑하는 문학 정리
'소년이 온다' '이방인' '데미안' 등 37권
정체성·모험 등 7개 키워드로 엮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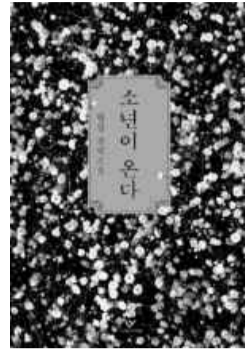
만 해세의 '수레바퀴 아래서', 스타탈의 '적과 흑', 어니스트 헤밍웨이 '노인과 바다', 히가시노 게이고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 모리스 마테를링크의 '파랑새' 등 책에 거론된 리스트는 '고전의 진수성찬'이라해도 무방하다.

가장 눈길을 끄는 책은 소설 한강의 '소년이 온다'다. 2015년 BTS가 공개한 '마 시티(Ma City)'에는 광주 출신 제이홉이 담담했던 랩 가사를 떠올리게 하는 측면이 있다. '나 전라남도 광주 baby/ 내 발걸음이 산으로 간대/ 무등산 정상에 매일매일... 내 광주 호시기도 전국 팔도는 가어 / 모두 다 놀러라 062-518'.

당시 국내 팬은 블로그를 통해 062는 광주 지역번호이고 518은 5·18민주화운동을 뜻한다고 설명했다. 굳이 그 설명이 아니어도 빛고를 시민들은 누구나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다.

소설 '소년이 온다'를 위로라는 키워드에 엮은 것에 대해 최 연구원은 "문학이 광주 시민에게 전하는 위로의 성격을 띠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최 연구원은 "2020년 5월 16일 처음 소설을 읽었는데 5월 18일에 마쳤다"며 "이게 무슨 운명인지 모르겠다"고 부연했다.

정체성을 다룬 키워드에서는 카뮈의 '이방인'을 소개



한다. 최 씨는 "부조리한 세상에서, 불합리한 삶에서 나름대로 의미를 찾아내면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정체성이 아닐까 싶다"고 덧붙인다.

모험 키워드에는 마크 트웨인의 '허클베리 핀의 모험'이 소개돼 있다. 미시시피 강을 배경으로 다양한 여행기를 담은 소설은 모험 외에도 여행을 통한 자유를 그리고 있다.

사랑을 다룬 리스트에는 에밀 아자르의 '자기 앞의 생'이 눈에 띈다. 소중한 것의 진정한 가치는 "역경을 딛고 선 후에 비로소 빛을 발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밖에도 소통 부분에서는 진정한 '변신'을 추구하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카프카의 '변신', 성장을 키워드로 한 소설에는 홀든 콜필드의 '호밀밭의 파수꾼', 본질에서는 프리디히 니체의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등을 소개한다. 한편 저자는 이번 '방탄 독서'가 코로나 블루에서 벗어나는 계기도 됐으면 한다. "방탄의 노래를 들으며 '방탄 독서'를 읽는다"면 비대면 상황에서의 "또다른 독서의 즐거움을 발견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얘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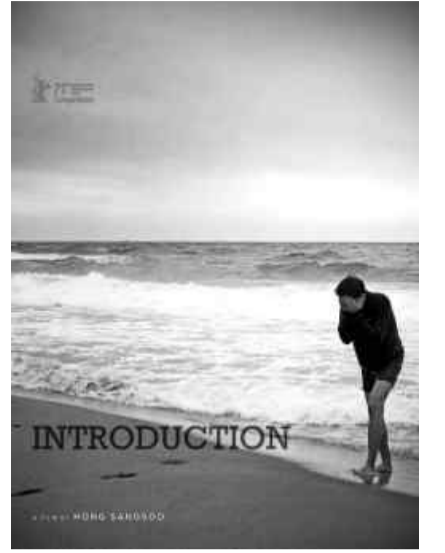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광주시 동구 충장로에는 광주 출신 BTS 제이홉을 비롯해 K-POP 스타 거리가 조성돼 있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홍상수 감독 베를린영화제 각본상

신작 '인트로덕션'으로
지난해 감독상 이어 수상



홍상수 감독이 베를린국제영화제에서 2년 연속으로 수상 소식을 알렸다.

홍 감독은 5일(현지시간) 폐막한 제 71회 베를린국제영화제에서 25번째 장편 '인트로덕션'(사진)으로 은곰상 각본상을 받았다. 지난해 '도망친 여자'로 감독상을 받은 데 이어 2년 연속 수상이자, 베를린에서의 세번째 은곰상이다.

'인트로덕션'은 세 개의 단락을 통해서 청년 영호(신석호 분)가 각각 아버지, 연인, 어머니를 찾아가는 여정들을 따라가는 영화다.

심사위원들은 "이야기를 들려주거나 내레이션을 효율적으로 전진시키는 것이 이상으로 행동과 행동 사이의 순간적인 간격을 적조하는데, 거기서 인간사의 숨겨진 진실이 갑자기 밝고 명쾌하게 드러난다"고 평했다. 이번 영화에도 연인인 김민희가 출연했다. 김민희는 프로덕션 매니저로도 이름을 올렸다.

홍 감독이 베를린영화제 경쟁 부문에 초청받은 것은 '밤과 낮'(2008), '누구의 딸도 아닌 해원'(2013), '밤의 해변에서 혼자'(2017), '도망친 여자'(2020)에 이어 다섯 번째다. '밤의 해변에서 혼자'는 배우 김민희에게 은곰상 여우주연상을 안겼고, '도망친 여자'로 3년 만에 은곰상 감독상을 받았다. /연합뉴스

아시아문화원 노조 '아특별 개정안' 반발

고용보장 촉구 결의대회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아시아문화원을 통합하는 내용이 담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아특별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아시아문화원 노동조합이 반발하고 나섰다.

아시아문화원지회(노조)는 5일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아시아문화원 고용보장을 위한 결의대회'를 열고 고용보장 방안 마련 등을 촉구했다.

노조는 "지난 2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아특별 개정안으로 인해 아시아문화원 250명 노동자를 대량해고로 내

모는 '정리해고법'이라며 "광주지역에서 문화전당이 가지는 의미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협약까지 체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약서에 담긴 고용보장은 개정된 아특별 법안은 사라지고 노동자들의 대량해고를 조장한다"며 "왜 노동자가 정부의 정책 실패의 결과물의 피해자가 되어야 하느냐"고 주장했다.

아울러 "개정된 법안은 훗날 언제든 법을 바꿔 공공기관 노동자에 대한 구조조정을 시행할 수 있는 무서운 선례를 남기는 악법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광주관광재단, 관광산업 상생협업사업 설명회

11일 김대중컨벤션센터

광주관광재단은 오는 11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지역 여행업계 관계자를 대상으로 코로나 19 위기 극복을 위한 광주 관광산업 상생 협업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재단은 현재 광주 특화 관광 상품 개발과 관광객 유치에 목표로 다양한 지역 여행업계 협력 사업을 계획하고 함께할 여행사를 모집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설명회 개최를 통해 실질

적인 지역 여행업계 지원사업인 '광주 협력여행사 공모 및 육성사업', 지속가능한 광주 관광산업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광주 예술관광 사업', 미향·예향·의향 관광 상품 개발 사업인 '온리원 브랜드관광상품 개발 사업' 등 주요 역점사업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갖고 지역 여행사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재단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062-611-3622.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광주문화재단 '예술동호회 활동지원사업' 공모

8~26일까지 접수

광주문화재단은 주민들의 예술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할 '2021 예술동호회 활동지원사업'을 공모한다.

모집대상은 지역기초(각 구) 공공문화시설로 시설별 최소 5개 이상 동호회(4인 이상 구성)를 보유하거나 자

체 모집해야 한다.

선정된 시설은 지역과 문화시설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 운영해야 하며 동호회 운영이 가능한 인력이 1명 이상 상주해야 한다.

지원 대상은 문화예술교육(강사비), 발표회(전시회 및 공연), 축제, 교류회(포럼) 등이며 최종 10개 내의

공공문화시설을 선정해 총 2억 원을 지원한다. (시설별 1000만 원-3000만 원 지원) 지원 가능 분야는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사진, 공예 등이며 기관 직원들로 구성(포함)된 동호회, 학생 동호회, 단순 감상 동호회 등은 지원 분야에서 제외된다.

접수는 8일부터 26일 오후 6시까지이며 공모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문화시설(기관) 증빙서류,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을 접수해야 한다. 문의 062-670-7446/7447.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귀할수록 전문 브랜드 비타민하우스

45 북위 45도 이상
흑한에서

15 15년을 자란
차가버섯을 엄선

12 12배 고농축으로
영양을 꽉 채운

**시베리안
차가버섯**

Vitamin House
구입문의 1588-8529

비타민하우스 전속모델 서경석